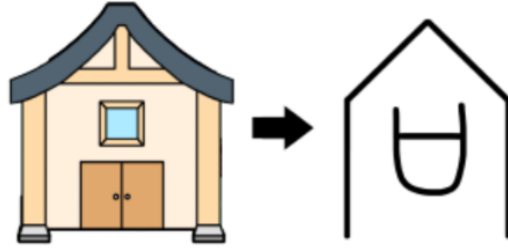


## 상형문자 ①



向

향할 향

向자는 '향하다'나 '나아가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向자의 갑골문을 보면 집과 창문만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창문'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向자의 본래 의미는 '창문'이었다. 창문은 보통 어느 방향에 자리 잡고 있을까? 아마도 대부분은 북쪽일 것이다. 왜냐하면, 집의 방향이 남향으로 정착된 이후부터 대문은 남쪽으로 지어졌고 창문은 북쪽을 향하게끔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向자의 본래 의미는 '북쪽을 향해있는 창문'이었다. 그러나 후에 '북쪽'이라는 뜻은 사라지고 단순히 방향만을 뜻하게 되어 '향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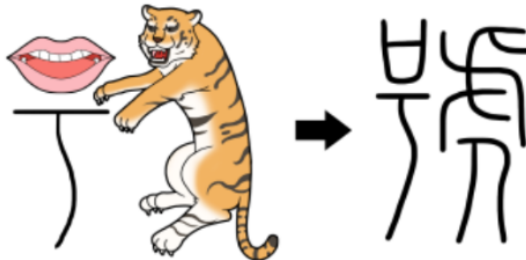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 회의문자 ①



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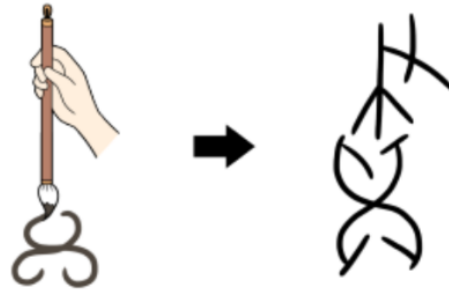
이름/  
부르짖을  
호

號자는 '부르짖다'나 '명령', '부호'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號자는 号(부를 호)자와 虎(범 호)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号자는 口(입 구)자에 소리가 울려 퍼지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부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부르다'라는 뜻을 가진 号자에 虎자가 결합한 號자는 호랑이가 부르짖는다는 뜻이다. 호랑이가 부르짖으니 소리가 매우 클 것이다. 그래서 號자는 매우 큰 소리로 외친다는 뜻으로 쓰인다. 그러다 보니 號자는 '명령을 내리다'나 '이름을 부르다'와 같이 큰 소리로 외친다는 뜻으로 쓰인다. 참고로 号자는 號자의 속자(俗字)로 쓰이기도 한다.

소전

해서

## 회의문자 ①



畫

그림 화/  
그을 획

畵자는 '그림'이나 '그리다', '긋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畵자는 聿(붓 울)자와 田(밭 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畵자는 田자가 부수로 지정되어 있지만 '밭'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畵자의 갑골문을 보면 붓을 쥐고 있는 모습의 聿자 아래로 꽃무늬와 같은 획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붓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畵자는 '그림'이나 '그리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지만, 후에 '분할하다'나 '계획하다'라는 뜻이 파생되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 상형문자 ①



黃

누를 황

黃자는 '누렇다'나 '노래지다', '황제'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黃자는 패옥(佩玉)이라고 하는 둥근 장신구를 허리에 두른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래서 黃자의 본래 의미는 '패옥'이었다. 그러나 후에 황금색의 패옥이라는 뜻이 확대되면서 '누렇다'나 '노래지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고 또 황금색은 황제의 색이기도 하여 '황제'라는 뜻도 갖게 되었다. 그래서 黃자가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황제'나 '누렇다'라는 뜻을 전달한다. 참고로 黃자가 다른 뜻으로 가차(假借)되면서 여기에 玉(옥 옥)자를 더한 璜(서옥 황)자가 '패옥'이라는 뜻을 대신하고 있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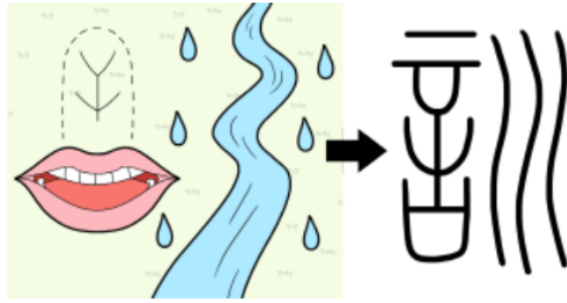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회의문자 ①



훈

가르칠  
훈

훈자는 '가르치다'나 '타이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훈자는 言(말씀 언)자와 川(내 천)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川자는 시냇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고 그 흐름은 자연스러워야 한다. 그러니 훈자는 말(言)의 흐름(川)이 자연스럽다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연스럽다는 것은 '이치에 맞다'라는 뜻이다. 아무리 좋은 말이나 훈계라도 이치에 어긋나면 안 된다. 그래서 훈자는 마치 물이 흐르듯이 조리 있게 얘기한다는 의미에서 '가르치다'나 '타이르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훈

소전

훈

해서